

T V

TV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30 생방송 세상의 아침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말할 수 없어>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8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아침 연속극 <녹색마차>
30 KBS 뉴스	00 아침드라마 <정화홍련> 30 여유만만	9 30 기본 좋은 날	20 좋은 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 동화 행복한 세상 55 여성공간	40 지구촌 뉴스	10 45 MBC 뉴스	40 SBS 뉴스
55 바른말 고운말	00 여행방송 특선 앙코르 <꽃보다 남자>(재)	11 00 수목미니시리즈 <트리플>(재)	00 현장리포트 사람세상(재)
00 KBS 뉴스12	10 인간극장 스페셜 <동재 오날의 뉴욕 사모곡> (1~5부)	12 00 MBC 뉴스와 경제 40 희망특강 파랑새 스페셜	00 뉴스와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결집전 <해신>(재)		35 통일 전망대	00 네트워킹현장 고향이 보인다
00 KBS 뉴스 10 KBS 중계식	20 KBS 네트워크 - 춘천	15 희망나눔 무지개	00 SBS 뉴스 10 특집 KBC 열린토론회(재) 우주산업! 고희 나로우주센터
	00 2TV 스페셜 1대100(재)	3 05 특집다큐멘터리 <한국의 맛, 세계인을 사로잡다>	50 TV 백과사전
00 KBS 오늘의 경제 10 사랑의 가족 35 TV유치원 피니시	10 꼬꼬야 꿈동산 40 꼬꼬야 신 티오	4 00 뽀뽀 아이조아 30 먹거리와 쟁점	00 일지매 30 내마음의 크리스마스 스페셜
00 KBS 뉴스 5 15 여름특선 BBC 다큐 <아마존> 40 남도지오그래피	10 2TV 하이라이트 비타민	5 00 MBC 뉴스 20 요리보고 세계보고 베스트 35 생방송 전국시대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테마스페셜(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10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6 30 MBC 뉴스 50 TV 전국기행 <가고 싶은 섬, 추지도>	25 생방송! KBC 특데이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우리말 겨우기	10 무한지대	7 45 일일시트콤 <태희 해고 지원이>	05 시사터치 떠따부다 15 일일 드라마 <두 아내>
25 일일연속극 <다함께 차차차>	00 KBS 8 뉴스타임 20 KBS 8 뉴스타임 - 광주·전남 30 30분 다큐	8 15 일일연속극 <발칙>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TV로컬 솔로몬
00 KBS 뉴스 9	00 위기탈출 넘버원 55 월화미니시리즈 <결혼 못하는 남자>	9 00 MBC 뉴스데스크 50 MBC 스포츠 뉴스 55 창사 48주년 특별기획 <선덕여왕>	55 SBS 월화드라마 <드림>
00 KBS 뉴스라인 30 오라차차 녹색시대	05 미녀들의 수다	10 15 문화콘서트 난장	05 특집 천원한 유산 스페셜
15 KBS 뉴스 25 스포츠 스포츠 35 비바 K리그	15 생방송 시사 360 45 결산 200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12 25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35 나이트 라인
			①:05 세네포트



# '해체설' 동방신기, 日서 화려한 무대

## 소속사 "그들 미래 논하기 어렵다" ... 오늘 공식입장 밝혔

해체설에 휘말린 동방신기가 1일 예정된 대형 음악축제에 출연해 뜨거운 무대를 꾸몄다. 동방신기는 이날 구마모토헌 컨트리 파크에서 첫날을 맞이한 에이벡스 소속 가수들의 여름 축제 '에이-네이션 09' 무대에 올라 히트곡 8곡을 소화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동방신기 멤버 중 시아준수·영웅재중·막기유 전 3명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소속사인 에이벡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에이벡스)는 "한국에서 보도된 동방신기 문제에 대해 SM측에 사실 확인을 하는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파과되지 않았다"면서, 아울러 "팬 분

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동방신기는 8일 '에이-네이션 09'의 예매 무대에 다시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일본에 계속 머물러는 않고 귀국해 3일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세 멤버가 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상권 문제 등이 불거졌고 거듭된 논의에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직 가처분 신청서 내용을 받아보지 못해 그들의 미래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요계에서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두 멤버인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이 각기 다른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결뉴스

### 제18회 광주·전남 직능비대회

#### 하우석 귀중한 승점추가

3회전 2군 총보 (1~221)

白 김영수 5단    黑 하우석 5단  
<빛고을 교사회>    <광주시청>

이전 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본국의 라이벌전은 결국 광주시청의 하우석 5단이 난적 김영수 5단을 대결전 끝에 2집 반 차이로 물리치고 귀중한 승점을 올렸다.

이 바둑은 라이벌전답게 초반부터 흑 17, 백 18 등 의욕이 넘치는 신형을 선보이며 관전자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이 접전은 가운데 흑이 끈기있게 백이 재미있는 전투로 보였는데 백 58로 계속해서 흑을 추궁한 것이 성급했다. 이 수로 61에 두어 모양을 갖춘 다음 천천히 흑 대마를 노렸으면 우세했다.

김영수 5단이 결정적인 대미지를 입은 것은 흑 77로 불어 모양을 정비했을 때 벌칙 백 78로 꺾어버린 것이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 수로는 골게 81에 느는 것이 '후수의 선수'로 계속해서 흑 대마를 괴롭힐 수 있었다. 흑 81로 끊긴 것이 빠이른 점으로 여기에서 김영수 5단이 수미기 착오를 일으켜 흑 97까지 소위 '거북 뱀매질'을 당하는 형국을 당하고 만다. 이것으로 흑의 우세가 확정되었다. 이후 김 5단은 우변에 쳐들어가 대반전을 노렸지만 하우석 5단의 선방에 막혔다. 흥미진진한 재미를 선사한 한판이었다. 흑 221 수 이화생략 흑 2집 반 승.

김영수 5단 <오규철 9단·본보 비독해설위원>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3일(음 6월 13일 庚辰)

36년생 주변을 웃기나 자신은 우울하다. 48년생 부부사이에 새로운 사랑이 싹튼다. 60년생 사기꾼이 달려드니 주변을 정리하라. 72년생 사방이 소란하니 하루를 조심해 보내라. 84년생 구설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6, 42

37년생 시비가 생겨도 자신에게 기운다. 49년생 배사에 관용을 생각하라. 61년생 실물 사기 도난의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73년생 애인과 이성교제가 있을 수도 있다. 85년생 여유로운 하루가 되리니 평화롭게 지내라. 행운의 숫자 : 10, 32

38년생 융화상박이니 결과는 반반이다. 50년생 적극적인 사고로 행동하고 뛰어들라. 62년생 전화위복이니 감사할 줄 알아야 하리다. 74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성사될 수 있으니 행동해야 하리다. 행운의 숫자 : 13, 28

39년생 중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51년생 중인이 나타나서 결판을 내놓는다. 63년생 큰 덕은 자신에 있다. 75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8, 43

40년생 회비가 얼얼하니 하루니 선택을 숙고하라. 52년생 가내 사기잡다 인자함을 보여주라. 64년생 과욕만큼 잃을 수 있는 손재수니 배움의 덕이 온다. 76년생 과욕하면 손해로 연결되니 욕심을 버려라. 행운의 숫자 : 20, 27

41년생 내 것 잃고 속상한다. 53년생 돌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라. 65년생 배사에 조심해 다해도 불만스럽게 꼬일 수도 있다. 77년생 발전을 약속하고 가속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행운의 숫자 : 24, 41

42년생 모든 일이 침체나 종래는 안정하게 지리한다. 54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66년생 부부사이에 이간질 할 가까운 사람이 나온다. 78년생 부부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5, 37

43년생 비정함 고충이 측근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 55년생 새 문서가 눈물 낸다. 67년생 예치 못한 억울함이 손님을 이간질하는 꼴이 된다. 79년생 이해없는 선감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다. 행운의 숫자 : 08, 34

44년생 자녀 직업으로 인해서 고역이 중중하니 마음을 다스려라. 56년생 제사가 순조롭게 신성되며 자유롭게 진행한다. 68년생 제사가 지체되고 결과도 늦어진다. 80년생 조영한 주변이 대고를 발생시킨다. 행운의 숫자 : 15, 16

5년째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화 된다. 57년생 중독하는 형상과 같고 주변이 잘 되면서도 어수선하다. 69년생 중의 불평사가 발생한다. 81년생 친구 친척 간에 좋은 일은 발생하나 돌변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17, 40

46년생 침착하게 서행하면 오히려 빠르리라. 58년생 침체 속에 실리도 있다. 70년생 평상일을 집중하라 발전이 있으리라. 82년생 생가정과 배인의 불평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격정된다. 행운의 숫자 : 21, 25

47년생 결과가 의외처럼 좋은 하루다. 59년생 과욕과 어리석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좋으리라. 71년생 남의 말로 손재수가 우려되니 가려서 들어라. 83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안하게 진행된다. 행운의 숫자 : 22, 39

www.cafe.daum.net/sajou114 ☎011-632-6121

### EBS

06: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09:45 치로와 친구들	15:35 달려라! 도라래(재)	19:50 로저의 단짝 칠구들
06:30 세계대마기행	10:00 60분-부모	15:45 깨미랑 부카래(재)	20:15 우당탕탕 마늘
07:10 리틀 프린세스	11:00 최고의 요리비결	15:55 당동영 유치원(재)	20:20 귀즈장사 만만세
07:25 신기한 스킨스	11:30 디류 프라이	16:15 리틀 프린세스(재)	20:50 세계 테마 기행
07:50 척척폭죽 처갓집	12:20 EBS CEO 특강	16:30 페넬로페, 뭐 할까?(재)	21:30 <생방송> EBS 뉴스
08:00 당동영 유치원	13:10 요리비결(秘傳)	16:35 척척폭죽 처갓집(재)	21:45 지식채널 e
08:20 그림 그려줘, 루이	13:40 문학사랑	16:45 빨강머리 앤	21:50 디류 프라이
08:30 달려라 카키	13:45 초등 1년 여름방학생활	17:10 워드 월드	<블, 갈라파고스>
08:40 달려라! 도라래	14:05 초등 3년 여름방학생활	17:35 신나는 과학 애니메이션 <Why?>	22:40 요리비결(秘傳) <영역 언어>
08:50 깨미랑 부카래(재)	14:25 초등 5년 여름방학생활	17:50 <생방송> 특! 특! 보너스	23:10 디류 10 + <자연>
09:00 뽀뽀뽀 뽀로로	14:45 배꼽 시즌2	18:50 배꼽 시즌2	00:00 지식채널 e
09:15 방귀대장 뽀뽀	14:55 또또비를 찾아라(재)	19:00 스톱 호크	00:05 EBS 스페이스-공감
09:30 울리와 나	15:05 방귀대장 뽀뽀(재)	19:25 이상한 나라의 풀	00:55 문학사랑
09:35 또또비를 찾아라	15:20 알뜰달록 콩콩이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7:00 EBS 포스 <수학 1>	08:00 EBS TV 중1 <국어>
07:50 EBS 기본과 특별한 <국어(하)>	08:40 <수학 1-2>
08:40 <과학>	09:20 EBS TV 중1 퍼펙트 체크업 <국어>
09:30 EBS 학습자료실 클리! 사이언스	10:00 생활속의 보전
09:35 TV로 보는 박물관	10:15 당동영 유치원
09:40 EBS 수능 플러스 <언어영역>	10:35 알뜰달록 콩콩이
	10:50 또또비를 찾아라
	11:00 요리조리광명 <국어(재)>
	12:00 EBS TV 중2 <국어>
	12:40 <수학 8-나>
	13:20 EBS TV 중2 퍼펙트 체크업 <국어>
	14:00 추추는 소녀 외와
	14:40 EBS TV 중2 <도덕>
	15:30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6:30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초급)
	17:00 초등 1년 여름방학생활
	17:20 초등 3년 여름방학생활
	17:40 초등 5년 여름방학생활
	19:00 EBS TV 중1 <수학 1-2>
	19:40 <수학 1-2>
	20:20 EBS TV 중1 퍼펙트 체크업 <국어(재)>
	21:00 EBS TV 중2 <국어(재)>
	21:40 <수학 8-나>
	22:20 EBS TV 중1 퍼펙트 체크업 <국어>
	23:00 EBS TV 중3 <국어(재)>
	23:40 <수학 9-나>

굿모닝 잉글리쉬 <1360>	오하오우 니혼고 <1360>	니하오 쑹구위 <437>	한자 이야기 <1077>
<h3>How about if we go to a movie?</h3> <p>영화보러 가는 것은 어때?</p> <p>A: What do you want to do tonight? B: How about if we go to a movie? A: OK, what do you want to see? B: I don't know. Let's just go and see what's showing.</p> <p>A: 오늘 밤 뭐하고 싶니? B: 영화보러 가는 것은 어때? A: 좋아, 뭘 보고 싶는데? B: 모르겠어. 그냥 가서 어떤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지 보자.</p> <p>* How about if ~ ~은 어때? * go and see = 보러 가다</p>	<h3>昨日(きのう)花子ちゃんとデートしました</h3> <p>어제 하나코짱하고 데이트를 했어요</p> <p>A: 實(じつ)は、昨日(きのう)花子ちゃんとデートしました。 B: おっ!とうとうあったか。 A: まあね。 B: それで? どうでしたか。 A: 映画(えいが)を見(み)ました。</p> <p>A: 실은 어제 하나코짱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B: 아, 드디어 했구나. A: 뭐 그러저러. B: 그래서, 어땠어요? A: 영화를 봤어요.</p> <p>デート: 데이트 とうとう: 결국, 마침내 それで: 그래서, 그런데</p>	<h3>头皮屑</h3> <p>비듬</p> <p>A: 求你了。洗一下头皮吧! 求你吧。洗一下头皮吧! (하루) 너 리. 시 지시어 모우하 웨! B: 怎么了? 怎么了? (왜) 왜? A: 着痒(지저)头皮屑! 지저 지저 지저! (간) 리 지저지저! B: 我洗过了, 可是好像洗不掉。 저가 리 지저 리. 지저지저 지저지저 지저지저! (왜) 시 구오 리. 지저 지저지저 지저지저!</p> <p>A: 너 지저 지저 지저 지저! B: 왜 그러지? A: 비듬 좀 가라 B: 관중어, 근데 왜 안 없어져? 头皮屑 지저지저 지저지저</p>	<h3>得魚忘筌(득어망진)</h3> <p>얻을 득, 고기 어, 잊을 망, 통발 진</p> <p>득어망진(得魚忘筌)은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어버린다는 뜻으로, 목적을 달성하면 그때까지의 수단이나 과정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의 비유이지만, 한편으로는 토끼를 잡고나면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라는 '토사구팽(兔死狗烹)'과 같은 배은망덕의 비유로도 사용한다.</p> <p>장자(莊子)는 외물편(外物篇)에서 참된 진리에 도달하려면 그때까지 사용한 모든 수단에서 벗어나야 함을 다음처럼 설명한다. "연문(演門)의 어떤 사람이 어미를 잃고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상주노릇을 하자 나라에서 관사(官師)라는 벼슬을 제수하였다. 그러자 그 지역 사람들도 본받아 상주노릇을 하다가 몸이 말라 죽은 자가 반이나 되었다. -중략- 통발은 물고기를 잡는 것인데,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어버리고(忘筌), 올라가는 토끼를 잡는 것인데, 토끼를 잡고 나면 올라가기를 잊어버리고(忘蹄), 말은 생각에 팔려 있는 것이므로, 생각을 얻으면 말을 잊어야 한다(忘言)."</p> <p>즉 '득어망진'은 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직을 얻으려고 말라죽은 사람처럼 되고 만다.</p>
<p>&lt;동아 외국어학원 제공&gt; www.donga.tv ☎ 222-6253</p>	<p>&lt;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gt; http://kglobal.wo.to ☎ 228-2545</p>	<p>&lt;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gt;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lt;한예원(韓藝媛)&gt;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